

## 홍암나철을생각하며.txt

요즘 MBC가 정말 의미있는 것들을 많이 방송합니다 .  
그 중, '홍암 나철'에 대한 방송이 있어 올립니다 .  
'나철'은 그 분이 이룬 업적에 비해,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분입니다 .  
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, '나철'과 '대종교'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.

2월 29일(일) MBC <이제는 말할 수 있다>-3.1절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-독립투쟁의 대부 홍암 나철  
<embed src="mms://211.43.212.134/ivs/hongam.wmv" autostart="true"></embed>

이 나라가 오늘날 혼란스러운 현대사를 겪게된 가장 큰 지점은 바로 일제 광복 후 ,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잃어버린데서 기인합니다 .  
우리의 초대 정부는 부끄럽게도 친일파들을 제거하기는 커녕 , 요직에 앉혔습니다 .  
그들은 마치 미국의 유대인처럼 정계와 재계에 핵심 기득권을 차지하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, 고압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축소 또는 왜곡시켜왔습니다 .  
심지어 우리의 국사조차 , 조선총독부시절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오던 이들이 초창기 강단사학을 지배한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.  
또한 스스로의 정신적,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들은 미군의 힘을 빌리기 위해 , 한국 개신교 핵심세력과 결탁하였습니다 .  
신사참배를 비롯한 친일경력을 명백하게 갖고 있는 한국 개신교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대종교에 의해 와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, 이미 정계, 재계에 든든한 인맥을 갖고 있는 개신교는 대종교를 하나의 종교차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.  
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'단군'을 민족시조가 아닌 특정종교 (=대종교)의 신으로, 민족경전(천부경, 삼일신고, 참계경)을 특정종교의 경전으로 인식하게 하여 , 우리 국민들에게 애당초 민족정신이 발붙일 자리를 갖지 않게 만들어왔습니다 .  
왜냐하면, 현재 개신교의 위치는 그리스도를 한민족이 대대로 믿어왔던 '하느님' (=하느님=하나님)의 연장선에서 해석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.  
서양열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감추기 위해 심어왔던 종교가 , 어느 새 한민족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. (^;:;)

저는 이제와서 '친일파들의 후예를 모조리 단죄하자!'라는 생각도, '개신교를 믿지마라!'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.  
종교는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.  
또한 잘못된 평가속에 돈과 권력을 물려받고는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괴씸하기는 하지만 , 죄를 따지자면 그들의 조상에게 있지 . 그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.

그러나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, 민족정신 자체가 계속해서 왜곡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.  
민족정신을 소비니즘이나 국수주의로 몰아붙이는 것도 매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.  
이것은 개인이, 오히려 설 수 있는 문제입니다 . 한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.

우리 조상들은 목사님도, 신부님도, 스님도 . 모두 단군상 앞에 절을 하셨습니다 .  
단군을 신으로서 모신 것이 아니라, 우리가 그 분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절을 하듯 경배한 것입니다 .

초기 임시정부는 한인, 한웅, 단군에 이르는 우리 민족 고대사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하고 교육하였습니다 .  
그 분들은 훼손되지 않았던 실제 유물들을 보고,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대륙의 기상을 직접 체험하고,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것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.

과거에는 일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족정신을 말살했다면 .  
이제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자신의 밥줄이 위태로울까봐 진실을 감춰오고 있습니다 .

그 수많은 진실 중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, 현재까지 개신교에 의해 계속 왜곡되어오는 '대종교' .  
그리고 '대종교'의 창시자인 '나철'입니다 .

현대의 대종교는 물론 종교단체입니다 .  
그러나 홍암 나철 선생은 어느 종파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대 사상가였고 , 스스로가 선도 수련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.  
그 분은 다양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, 마지막 방법으로 민족정신을 일제침략기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'종교'라는 형태로 구현시키셨던 것입니다 .  
이는 조선시대에 최제우가 동학을 통해 했던 일이고 , 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민족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선인들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.

만약, 대종교가 없었다면, 일제의 조직적인 민족정신말살정책에 의해, 우리의 역사와 글, 문화가 그 형태를 거의 상실했었을 것입니다 .

이제는 권력과 재물에 빠져,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 
홀로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'나철' 선생님을 함께 상기해봤으면 합니다 .